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갈등 해소 역할 '돋보이네'

비정규직 고용문제·금호타이어 교섭 타결 등 일조

신설 초기 회의적 시선서 적극적 활동으로 신뢰 구축

광주시가 민선 6기들어 신설한 사회통합추진단이 지역 내 난제 해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광주시가 첫 시도하는 '사회통합추진단'의 역할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초 사회통합추진단을 들고 나온 당시만 해도 시의회와

일부 시민사회 등에서 굵직한 시선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윤 시장의 '시민 중심 시정 철학'도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은 당시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조직 해체 공세 등에 몰린 사회통합추진단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조직 구성 반년 만에 사회통합추진단이 내놓은 성과는 크게 비정규직 고용 조건

개선과 노사분규 중재로 나뉜다.

사회통합추진단은 시청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책을 마련한 데 이어 금호타이어 노사분규 중재라는 어려운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노사분규 중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의 외자 기업 투자유치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이다. 광주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8%명 전원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한다는 목표를 내었다. 다음달 본청 소속 74명의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를 직접고

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비정규직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윤 시장의 시정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추진단은 정년만 보장받은 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실상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직원들에게도 '공무직'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해 자존감을 높여줬다.

추진단은 이름 그대로 사회통합을 위한 행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추진단은 워크아웃을 종료하자마자 터진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에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교섭 타결에 일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체계를 놓고 첨

예하게 맞서면서 전면파업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컸지만, 윤 시장은 추진단을 통해 노사 대표 등과 언어가 만나 분규 해결의 실마리를 직접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지회장을 3차례나 역임했던 박병규 현 사회통합추진단장의 물밑 활약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은 "국가나 자치단체 경쟁력의 핵심은 노사, 계층, 세대, 이념, 지역 등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유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사회통합과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시민감사관 확대 올 안전 등 32곳 감사

광주시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32곳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감사관을 대폭 확충해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안전·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자체감사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는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시 본청 등 직속기관 5곳,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 10곳, 북구와 남구 등 자치구 2곳, (재)광주비엔날레를 포함한 출자·출연기관 등 총 32곳이다.

올해 감사에는 50명 수준인 시민감사관을 100명까지 확대하고, 공사 준공 검사 등 현장확인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기회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열리는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대한 실태 감사, 세월호 사건 등을 계기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분야 감사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빠지거나 누수되는 일이 없는 지 등 복지분야 전달체계에 대한 감사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책,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 등 시민 중심 감사도 강화된다.

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는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은 사업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한편 심사의 의무화할 계획이다.

광주U대회 지원업무와 경기장, 수영장 건립 공사 등 42개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도 한다.

박옥창 광주시 감사관은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발굴·포상하고, 위법부당한 부정부패 공직자는 척결해 전국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청렴도시 광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후보지 3곳 신청

동구 계림8구역·북구 우산구역·광산구 송정주공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후보지로 재개발 조합 등 3곳이 신청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으로부터 선수촌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조합이 구성된 재개발, 재건축 구역 28곳 중 동구 계림8구역(1824세대), 북구 우산구역(2080세대) 등 재개발 2곳과 재건축 구역인 광산구 송정주공(1251세대) 등 3곳만 접수했다. 그나마도 후보지 신청 기준인 선수촌 사용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긴 곳은 계림8구역이 유일하다.

기준에 미달한 2곳은 시에 최종 신청서를 내는 오는 30일까지 주민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평가대상에 제외된다.

대규모 단지로 신청이 유력했던 서구 광천구역이나 광산 신가구역 등 상당수 재개

발·재건축 조합은 까다로운 자격 기준 등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다.

실제 용적률 상향, 미분양 물량 보충, 시공사 선정 등 과격적 인센티브를 줬던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과는 달리 인센티브는 없고, 자격 기준만 엄격하게 적용된 상황이다. 특히 4차로 이상 진입로 확보 등 까다로운 입지 조건도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재개발 조합 등의 신청과는 별도로 광산 첨단3지구나 효천2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촌 규모가 4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후보지 1~2곳이 기준 미달 등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종이비행기에 아이디어 적어 날려요

광주시가 시청사 재단장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4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 마련한 '원탁 테이블' 행사에서 참가 시민들이 '공연장, 놀이터, 장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뒤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 대회운영 실전체제 돌입

조직구성안 최종 확정

종합상황실·TF팀 등 가동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현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전체제에 돌입했다.

대회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종합상황실(MOC)을 설치하고 현장별로 사무처장과 현장매니저, 시설지원요원, 운영지원요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전담팀)을 구성해 실전 준비에 들어갔다.

또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고 현장 지원 분야는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25일 광주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대회가 끝나는 7월 17일까지 종합상황실(MOC)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위 12층에 마련될 종합상황실은 경기장과 훈련장 등 대회시설 74곳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개막을 일주일 앞둔 6월 26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된다. 경기, 재정물자, 수송, 인력, 홍보, 통신 등 24명의 인

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경기 시설별별 현장 TF팀을 만들고 실전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TF팀은 사무차장(총무담당관), 현장매니저(조직위), 경기부(경기진행, 경기지원, 국제협력), 시설부, 운영부(수송·입장, 미디어·의전, 정보통신, 의무·반도핑)로 구성된다.

대회 개막 4개월 전인 3월부터 실전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장매니저는 경기 일정은 물론 선수의

안전과 각종 상황을 파악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조지한 후, MOC에 보고한다.

자원봉사자와 지원요원도 3월 중에는 배치돼 현장 감각을 높여가게 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또 경기운영과 선수단 서비스, 미디어서비스 등 대회에서 기능과 역할이 커지는 분야를 대상으로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1층장 7본부 20부 1단 1소 2실 63명 체제에서 1층장 7본부 20부 1단 1소 1실 1담당관 63명 체제로 전환됐다.

현장 중심 상황에 맞게 축구팀, 배구야구팀, 핸드볼수구팀, 개인경기4팀, 개폐회식의전팀, 보도팀, 미디어서비스팀 등 7개팀을 신설했다.

대회 실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국내·외 초청 인사나 주요 방문객을 위한 의전 업무도 강화됐다.

대면인실에 신설된 보도팀은 보도자료와 기사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미디어부에 소속되는 미디어서비스팀은 국내·외 미디어진 취재 지원, 편의 제공 등 서비스를 총괄한다.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상황보고 시스템 테스트와 보안 작업을 거쳐 3월에 상황실 설치를 마무리한 뒤 4월부터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실전 운영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5층 상가매매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고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1. 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2. 주차장 고정완비
3. 임대료 보3천 130만

상업중심지역

1. 1층, 2층 3층, 4층, 4층
2. 월수익 1,020만
3. 전사가 다입주 되어있음

010-6670-98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1. 기본 경매 강의
2. 바로 실전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 오전10시~오후 7시
☎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1.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정이 10억 최저가 5억7천
2.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정이 17억 최저가 9억5천
3.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정이 2억5천 최저가 1억4천
4.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정이 1억4천 최저가 1억4천
5.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정이 10억 최저가 7억5천
6.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정이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7.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정이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8. 남구 서동 (토 306㎡, 건 90.18㎡) 감정이 1억6천 최저가 1억1천

다세대빌라

1. 남구 지석동 (토지 ㎡, 1255㎡) 감정이 10억, 최저가 5억7천

공 장

1. 광산구 월전동 (토지 4162㎡, 건물 3281㎡) 감정이 30억, 최저가 16억
2. 북구 월송동 (건 1746㎡) 감정이 25억, 최저가 11억
3. 광산구 지족동 (토 2073㎡, 건물 1187㎡) 감정이 16억, 최저가 9억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